

새 해의 새 주제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며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저는 2017 년의 국가형제회 주제를 들었을 때 확신했습니다. 지난 11 월 국가총회 때 주제 위원회가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하느님의 숨결”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저의 첫 생각은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이었고 너무도 행복하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저의 성향에 딱 맞는 주제였고, “주님, 멋진 주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셨습니다”고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머리가 이렇게 답하는 동시에, “쟤, 그것이 아니란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네, 행동하라는 주제가 아니라고요?라고 반문하면서, 저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서둘다보니 본질을 놓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고, 몇 주 후에야 메시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숨결!”

우리의 주제는 무엇보다 우선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입니다. 회칙 8 조의 “회원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처럼 어떠한 행동 앞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오, 하느님의 숨결. 저를 새로운 삶으로 채우시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점은 이미 누구나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성취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쉽게 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 월 국가 상임위원회 의제를 준비하며 큰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긴 “할일” 목록을 검토하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자문하며 상황에 압도당하면서 메리 비터에게 전화를 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메리는 저로 하여금 “할일” 목록에서 한 걸음 물러나 깊은 숨을 쉬고 함께 이사야서 55 장 1-13 절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 말씀을 듣고 밝아지며 깨달았습니다. 국가상임위원회를 이사야서 55 장으로 시작하며 “우리는 효과적인가?” “목적을 생각치 않고 일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자문하기로 하였고 바로 평화로와짐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는 하느님 말씀 묵상의 축복으로 우리가 무엇을 왜 해야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모든 의제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 국가 주제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숨결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매사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우리의 주제는 하느님께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계속됩니다. 하나로 행동하라는 부름을 들을 때, 사도적 삶을 살도록 불린 프란치스칸 형제회를

연상됩니다.¹ 재속 프란치스칸으로 우리는 사목과 활동을 함께 합니다. 행동으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하나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 주제와 우리의 카리스마스는 더 크고 포괄적인 일치인 영성체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영성체를 “영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결실과 증거이며 우리를 한 마음, 한뜻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 하시며, 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영성체의 영성을 알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성을 “신앙의 형제 자매를 신비로운 성체와의 일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분의 지체”로서 형제 자매를 위해 나를 내어주어 “남의 짐”(갈라 6,2)을 지어주고 경쟁, 불신과 질투를 유발하는 이기적인 유혹을 견디어내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영성체의 영성은 매순간 매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장 높으신 분의 모상을 찾는 프란치스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치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닌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이와 모든 창조물의 형제자매입니다. “하느님의 숨결이시여, 우리를 하나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이러한 일치의 이미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끝으로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현실에 뛰어들어라! 변두리로 찾아가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알려라!라고 하십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재속 프란치스칸 가족 여러분, 행동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성소와 주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증거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다락방에 모여 그분의 숨결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거룩한 영성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창조물이 하나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살라고 불리웠음을 나아가 알립시다.

우리에게 단순히 주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갈 길을 함께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새해엔 “오 하느님의 숨결이시여,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불리운 성스러움에 합당해지도록 합시다.

¹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22 조